

# 에너지전환 · 탄소중립 실천 거점 '우뚝'

### 에너지자립형 그린리모델링 건물로 문을 연 '전주시에너지센터' 개관 1주년 맞아... 1년간 7000여명 방문

에너지자립형 그린리모델링 공공건물로 문을 연 전주시에너지센터(이하 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이끄는 지역 에너지전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에너지센터 전경

센터는 지난해 6월 21일 개관 이후 기후위기로 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주요 분야로 '건물에너지 가치 확산'을 목표로 삼고, 연령대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건물에너지 건강검진 등을 운영했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 전시실 운영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의 효용성을 지역에 확산시켜온 결과 개관 이후 1년간 총 7000여 명의 방문객이 이곳을 다녀갔다. 센터는 개관 1주년 개관을 맞아 21일

부터 오는 30일까지 공간탐방 및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운영한다.

시민들은 센터 1층 공용공간 내 책방 '전환시점'에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동화책을 읽고 인증하면 방사능FREE 식재료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올 하반기에는 시민참여 탄소중립 실천과 재생에너지 시민수용성 확대 등을 위해 △에너지전환마을 지원 △에너지전환박람회 △에너지절약플랫폼 △태양광건설링 △찾아가는 태양광설명회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에너지센터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고성능 단열·창호보강, 고효율 냉·난방시설 및 폐열회수 환기시스템, 태양에너지 설치 등을 통해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 에너지 자립률 40% 이상을 확보한 제로에너지 4등급 인증 건물이다.

센터가 개관 후 1년 동안의 건물의 에너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자립률 53.0% △전력자립률 71.3%

로 조사돼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 또 이로 인해 약 29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전주시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우리는 에너지자립도시를 향한 전주지역의 모든 활동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면서 "센터가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천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가지고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센터의 공간 운영 및 추진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에너지센터 누리집(www.etur.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905-41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옥기 기자

# '건강한 마음을 키우는 청년 도시농부'

### 전주농기센터, 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학생들과 생태텃밭 수확물 활용 봉사활동 추진

올봄부터 한 학기 동안 이어온 청년 도시농부들의 열정과 노력이 땅 흘려 수확한 농산물을 나누는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전주농업기술센터와 전북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학생들은 21일 텃밭 수확물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끝으로 이룬 봄부터 이어온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와 전북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학생들은 21일 텃밭 수확물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끝으로 이룬 봄부터 이어온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모두 마무리했다.

센터와 전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동반 식물을 활용한 생태텃밭을 조성하고, '건강한 마음을 키우는 청년 도시농부'를 주제로 4개월간 도시농업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에서는 생태텃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텃밭 디자인

에 대한 교육을 담당했으며, 전주시농업기술센터와 전주시니어클럽의 도시

농업 컨설턴트사업단에서 함께 양성한 시니어 텃밭관리사들은 프로그램 보조와 학생들이 텃밭 관리를 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대신 텃밭 관리를 맡는 등 도시농업을 지원했다.

그 결과 청년 도시농부들은 스스로 일군 도시텃밭에서 직접 키운 깻잎과 상추, 고추, 감자, 오이, 애호박 등을 수확했다.

청년 도시농부들은 또 수확물을 활용해 직접 감자샐러드 샌드위치와 깻잎 모듬, 호박전, 호박전 등의 음식을 만들어 이날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대접했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정기영 학생(전북대학교 원예학과 2학년)은 "지금까지는 도시농업이란 단어를 들어보기도 하고 참여할 기회가 없었는데 올해 프로그램 진행 소식을 접하고 바로 참여하게 됐다"면서 "한 학기 동안 직접 농사도 지어보고 도시농업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배운 점들이 많았고, 수확한 농산물을 나눌 수 있어 뿌듯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옥기 기자

# 전주풍남학사, 지방대학생 방학 중 숙소 지원

인재 양성의 요람인 전주시 서울장학숙 전주풍남학사는 오는 7월 10일까지 전주 출신 지방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숙소 지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에 소재한 전주풍남학사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전주 출신 우수대학생의 거주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되는 기숙사로, 이번 숙소지원은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학원 수강과 인턴체험 등 역량강화를 위해 잠시 서울에서 생활하게 된 전주 출신 지방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모집대상은 전주풍남학사의 상황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한 전주 출신 대학생 중 남학생 4명이며, 선발자는 한 달간 이곳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2년제 이상 정규대학에 진학한 전주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보호자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시는 거주지 요건과 재학 여부, 방학 중 상경 사유 등을 심사한 후 접수 순서대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전주풍남학사에 방문하거나 전자메일(69252881@daum.net), 등기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48)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전주풍남학사는 지하층, 지상3층의 4개 동으로 1일 3식을 제공하는 식당과 체육관, 도서관, 세탁실, PC홀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2인 1실로 책상과 침대, 옷장, 샤워실, 화장실, 냉난방기 등이 완비돼 있다.

/김옥기 기자

# 사랑의 희망열차로 이웃사랑 나눔

### 전주자봉센터 · 송천1동, 어르신 대상 공연 · 건강 돌봄 등 추진

사단법인 전주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가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이동봉사를 통해 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과 문화공연, 건강 돌봄 등을 제공했다.



문봉사자들도 동참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송천1동(동장 최두형)은 21일 송천동 양정교회에서 지역 노인 350여 명을 대상으로 '제517회 사랑의 희망열차 전문이동봉사' 활동을 펼쳤다.

총 10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한 이날 봉사활동에는 △송천1동 사랑의 울타리 봉사단 △새마을부녀회 △풍장협의회 등의 단체가 함께 준비했으며, 전북위너스MC협회(회장 이정표)의 사회로 지역기수와 전주시생활체육지도자회, 색소폰 연주자 등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흥겨운 문화공연으로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건강 돌봄을 위해 전문봉사자들로 구성된 △온새미로봉사단(말바사지) △로사헤어미용봉사단(이·미용) △나눔서금요법봉사단(서금요법) △귀반사건강봉사단(이월) △엄지건강법봉사단(경월) 등의 전

이날 전문이동봉사는 행복한밥상 푸드봉사단(회장 안영순)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최두형 송천1동장은 "여름 길목에 들어서며 날이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건강이 항상 걱정"이라며 "오늘 이 시간이 즐겁고 유익했길 바라며, 어르신들이 항상 건강하고 유익한 송천1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이천 사단법인 전주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챙겨드리기 위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더운 날씨에도 함께하고 있다"면서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봉사자분들과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전주시내버스 친절 · 안전기사 11명 선정

전주시가 평소 안전한 운전 습관과 친절함 응대로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온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4일 '2023년 상반기 시내버스 친절 · 안전기사'로 선정된 성진여객 김호병 기사 등 11명의 버스 운전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장을 받은 시내버스 친절 · 안전기사는 △김호병 · 송기원(성진여객) △장인태(시민여객) △최치운 · 최명희 · 광승기(전일여객) △송경은 · 이금구(제일여객) △김영덕 · 김희성 · 박래근(호남고속)이다.

이들은 지난 5월까지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링단과 시민 제보 등을 통한 추천과 친절 · 안전기사 선정위원회 심사와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친절 · 안전기사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사들은 소속 버스회사로부터 각각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받게 되며, 명함과 함께 엠블럼 패치도 받는다. 또, 표창일로부터 5년간

전주시가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이용료의 50%를 감면받게 되며, 연말에 진행되는 2023년 친절 · 안전기사 왕중왕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김옥기 기자

